

# ‘새 얼굴·새 전술’...최적 조합 찾아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이강인 등이 18일 오후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을 이틀 앞두고 밝은 표정으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수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투쟁했던 부분을 높게 산다.”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16일 페루와 평가전에서 0-1로 패한 뒤 “어린 선수들과 대표팀에 다시 합류한 경험 있는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는 기회였다”라며 패배의 실망감 대신 새로운 선수들의 최적 조합을 찾는 실험의 만족감을 표사했다.

그렇다고 클린스만 감독이 페루 전 결과를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솔직히 지면 화가 난다. 하지만 이런 여정에서 패배의 쓴맛을 잘 소화해야 한다”라며 “먼저 실점하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선수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투쟁했던 부분을 높게 산다”고 화를 다스렸다.

## ‘손흥민 결장’ 클린스만호, 페루戰 0-1 석패 내일 엘살바도르戰 ‘마수걸이 승리’ 재도전

비록 결과는 패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페루전을 통해 다양한 전술 실험을 펼친 게 위안거리다.

손흥민이 빠진 상황에서 4-4-2 전술의 최전방 투톱 스트라이커를 오현규-황희찬에게 맡기는 낮선 조합을 가동했고, 좌우 날개에는 이재성-이강인을 세우며 ‘공격 공학’을 점검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도중 이강인과 이재성의 위치를 바꾸며 이들의 최적의 포지션을 지켜왔다. 후반 초반에는 조규성과 흥현석을 동시에 투입하면서 4-1-4-1 전술로 바꿨다.

황희찬이 왼쪽 날개로 이동한 가운데 증원 미드필더 조합을 ‘역삼각형 형태’로 바꿨다.

홍현석과 황인범이 나란히 전방으로 배치되고, 원두재가 홀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다.

수비에는 부담이 가지만 최전방 공격 숫자를 크게 늘려 득점해보라는 클린스만 감독의 작전이었다.

후반 막판에는 나상호와 황의조까지 투입해 최후방에 수비수 2명만 남기는 ‘투백 전술’로 공격에 올인하는 장면도 연출, 비록 골이 나오지 않아 졌지만 내용에서는 박

진감이 넘쳤다.

특히 화려한 드리블로 수비를 잠재우고 강력한 원발 크로스를 선보인 이강인의 활약이 돋보였다. 여기에 이강인의 크로스에 이어진 조규성의 헤더 시도는 클린스만호의 새로운 ‘득점 루트’로 떠올랐을 가능성을 보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승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부상 선수도 많았던 만큼 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면서 (이들이) 카타르 아시안컵(2024년 1월)을 향한 여정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제 클린스만호는 20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FIFA 랭킹 75위)와 6월 A매치 2연전의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세단뛰기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건 김장우(파란 유니폼)가 시상식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장흥군청 김장우, 세단뛰기 대회新

### 전국실업육상, 해머던지기 박서진·400m 이아영 ‘金’

세단뛰기 국내 1인자 장흥군청 김장우가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김장우는 지난 14일 나주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대회 남자부 세단뛰기 3차 시기에서 16.50m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일찌감치 금메달을 확보했다. 이어 6차 시기에서도 16.73m를 뛰어서 이번 신기록을 갱신했다.

김장우는 2위 남수환(제주시청, 15.53m)과 3위 김동환(안동시청, 15.49m)을 압도하며 1위를 차지했다.

여자 해머던지기 1인자 박서진(목포시청)도 57m57을 던져 ‘절대 강자’의 위용을 과시했고, 여자부 400m에 출전한 이아영(광양시청)도 56초6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남자부 해머던지기 출전한 김진

(목포시청)은 61.26m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부 10000m 김은미(여주시청), 여자부 높이뛰기 김은정(여주시청), 여자부 포환던지기 정소은(목포시청), 여자부 해머던지기 권수아(장흥군청)도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밖에 남자부 10종경기 이승호(광양시청), 남자부 800m 김동욱(나주시청), 남자부 5000m 김은미(여주시청)는 각각 동메달을 따냈고, 여자부 4x800m에 출전한 해남군청(박기란·신미란·김현진·이규림)도 동메달을 보냈다.

이번 대회서 전남 소속 육상실업팀은 금메달 3, 은메달 5, 동메달 4개를 수확하며 안방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메달 기대감을 높였다. /박희중기자

## 광주도시철도공사 장한빛 양구평화킥유도 ‘金 메쳤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자유도팀 장한빛(26)이 2023 양구평화킥전국유도대회 정상에 올랐다.

장한빛은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70kg급 결승에서 김은솔(안산시청)을 상대로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장한빛은 1회전에서 손승민(포항시청)을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꺾었고, 8강에서는 유현지(충북도청)에게 기권승을 거뒀다.

이어 열린 준결승에서는 양지영(동해시청)에 반칙승(지도 3개)을 거둬 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남자일반부에서는 여주시청 김성훈(28)이 -90kg급에서, 정다빈(24)이 -100kg급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



지난 16일 열린 2023 양구평화킥전국유도대회 여자일반부-70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장한빛(가운데)이 신대철 감독, 김성연 코치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득했다. 세한대 김민성(20)은 남자대학부 +100kg급 동메달을 수확했다. /박희중기자



## 엑스페론, 2023 엑스페론 프로단 협약식 체결

골프 브랜드 엑스페론이 최근 2023 엑스페론 프로단 & 티프로그 공식 스폰서십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엑스페론 프로단은 김선용 엑스페론 프로단 단장을 비롯해 9개 시·도의 프로 지부장으로 이뤄진 프로단이다. 엑스페론 프로단은 협약을 통해 골프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엑스페론만의 소통장구를 강화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대회부터 월례회 등 다양한 골프 커뮤니티에 엑스페론 프로단이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엑스페론 프로단은 앞으로 다양한 대외활동과 홍보, 행사 등을 통해 직접 골프 프로단이 각 지역사회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한편, 엑스페론은 세계최초 골프공 밸런스 특허를 받아 프리미엄 볼인 ‘엑스페론 시리즈’를 출시하고, 골프 무인 플랫폼 ‘큐빙’과 골프 라이프 앱 ‘엑스페론’의 골프 플랫폼을 운영 중인 대한민국의 대표 골프 라이프 기업이다. /박희중기자

김선용 엑스페론 단장은 “엑스페론 프로단은 단장과 각 지부장을 통해, 엑스페론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또한 프로단을 통해 골퍼들에게 더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며 “나아가

## 홍지원, ‘메이저 여왕’

### 한국여자오픈 연장 우승



홍지원. <KLPGA 제공>

홍지원(23)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새로운 ‘메이저 여왕’으로 등장했다.

홍지원은 18일 열린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한화 클래식 D B그를 한국여자 오픈 최종일 연장전 끝에 우승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타를 친 홍지원은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마다솜, 김민별과 함께 연장전을 벌였다.

18번 홀(파4)에 벌인 첫 번째 연장전을 셋 타 파로 비긴 뒤 2차 연장전에서 홍지원은 두 번째 샷을 홀 1m 옆에 떨어뜨려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메이저대회인 한화 클래식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홍지원은 두 번째 우승도 메이저대회에서 거뒀다. 우승 상금은 3억원.

통산 상금 9억6천966만원을 쌓은 홍지원은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만 6억원의 상금을 챙겼다. 신인 김민별과 2년 차 마다솜은 생애 최고 순위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 “여러분이 전남체육의 미래” 전남도체육회, 소년체전 빛낸 다문화선수 초청 격려



전남도체육회가 지난 15일 마련한 제52회 전국소년체전 참가 다문화가정 선수 격려 자리에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등 내빈들이 다문화 꿈나무 선수들과 전남체육 도약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격려금·격려물품 전달, 꿈나무 선수들의 희망 응원

전남도체육회가 지난달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전남을 빛낸 다문화가정 선수들을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5일 목포에서 제52회 전국소년체전대회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선수 39명을 초청해 격려금, 격려물품 등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양기열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도체육

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송진호 회장은 이날 제52회 전국소년체전대회에서 여중부 육상필드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획득한 서예지(광양백운중 3년)와 남중부 역도 73kg 인상과 합계에서 2관왕을 차지한 김태양(완도중 2년) 등 꿈나무 선수들에게 격려금과 격려물품인 스마트워치를 전달하며 선수들의 꿈을 응원했다.

송진호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제52

회 전국소년체전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서 나신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전남도체육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 군은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전남도체육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운동해 전남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박희중기자

## ‘골절 의심’ KIA 김선빈 1군 말소

### 윤영철은 휴식차원 1군 제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주전 2루수 김선빈이 손가락 부상으로 결국 1군에

서 말소됐다.

KIA는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전을 앞두고 내야수 김선빈과 왼손 투수 윤영철을 엔트리

에서 제외했다.

김선빈은 17일 NC전에서 4회 수비 도중 제이슨 마틴의 타구를 잡으려다 오른손 엄지 부근을 강타당했다.

즉시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김선빈은 엄지 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19일 서울에서 제검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편, 17일 NC전에서 3이닝 11피안타 7실점으로 데뷔 후 가장 많은 점수를 내줬던 신인 왼손 투수 윤영철은 휴식 차 1군에서 빠졌다.

17일 경기에서 NC 투수 테일러 와이드너의 투구에 오른팔등을 맞은 류지혁은 엔트리 변동 없이 18일 경기를 벤치에서 대기한다. /연합뉴스